

삼성전자, 2006년 LCD 매출 신기록

148억5000만달러 달성해 5년 연속 1위 ... 타이완이 한국 바짝 추격

삼성전자가 2006년 LCD 매출액 148억5000만달러를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실적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2002년 이후 5년 연속 LCD 매출 세계 1위도 유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6년 LCD 매출이 전년대비 33% 가량 늘어난 148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5년간 삼성전자는 LCD 매출에서 연평균 신장률 45%를 기록하며 매년 매출 신기록을 갱신해 왔으며 월매출 기준으로 20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해 왔다.

2006년 전체적인 LCD 판매는 세계 디스플레이 상위 7사가 2005년에 비해 평균 20% 신장해 호조를 보였다.

한국은 2006년 세계 매출 560억3000만달러 중 260억4000만달러를 차지해 1위 자리를 지켰고, 타이완이 229억1000만달러로 한국과 약 31억달러의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판매면적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LG필립스LCD, AUO, CMO 순으로 한국기업들이 1위, 2위를 독식했다.

한국기업들이 대형 TV 시장을 주도함으로써 판매면적에서도 타이완기업들을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디스플레이서치는 2007년 LCD 패널 시장이 2006년에 비해 약 10% 성장한 774억달러에 달하고 2010년에는 903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9>